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4월 4일(주일) 제1338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4월 4일 부활주일 ...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다!” 칸타타, 차세대 부활절 드라이브스루 행사 등 풍성한 기념행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4월 4일은 부활주일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다. 이 기쁘고 뜻깊은 날 온누리교회는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기념행사도 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토요주일 및 일요주일에 예배(대학청년부, 열린새신자예배 제외)에서는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 서빙고 주 사랑 찬양사역팀 ‘만왕의 왕’, 양재 주기쁨 찬양사역팀 ‘예수’를 주제로 영상 칸타타(비주얼 콰이어, 내레이션 등)를 선보인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벤트도 이어진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활절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개최한다. 차세대 자녀가 있는 1,420가정에 ‘가정신앙문화 패키지’와 간식을 선물할 예정이다. 가정신앙문화 패키지에는 기쁨의 50일 퍼즐, 각 티슈, 생명 화분(예뽀, 꿈팡), 부활전라면(파워웨이브) 등이 들어있다.

지난주(3월 29일~4월 3일) 온누리교회는 ‘생명을 위한 고난’을 주제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했다. 생명의 의미와 소중함,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박상은 박사(생명원미션)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 김현철 목사(사 프로라이프 고문) ‘생명의 소리’,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하나님의 생명사랑’, 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미혹의 영, 페미니즘과 낙태자유’,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영광을 위한 고난’, 이재훈 담임목사 ‘예수께서 누우신 자리를 보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상의 자매(새가족 과정)는 “생명을 위한 고난을 주제로 열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나는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이고, 다른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김다윗 형제(하늘대학부)는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다”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개국 16주년

특집 다큐, 풍당 이벤트 실시

CGNTV가 개국 16주년을 맞이했다. CGNTV 개국 1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4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특집 다큐멘터리 ‘컴백, 흠’을 방영한다. 다큐멘터리 ‘컴백, 흠’은 인도, 홍콩, 몽골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평균 나이 74.6세의 은퇴 여선교사 세 명의 특별한 동거 이야기다. 배우 신세경이 내레이션 했다.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 이벤트도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클래스를 수강하고 후기를 남기는 ‘풍당 클래스 이벤트’와 ‘풍당’ 앱 화면을 캡처해서 필수 해시태그(#복음에 빠지다, #풍당, #기독교OTT풍당)와 함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는 ‘풍당 SNS 이벤트’가 이어진다. / 김영선 기자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에 유재건 장로 당선

한국인 최초 임기 4년



유재건 장로가 한국인 최초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이 됐다.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세계유네스코

협회연맹 총회에서 유재건 장로가 임기 4년 새 회장에 당선됐다.

세계유네스코협회연맹은 유엔 산하 유네스코의 평화운동과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민간기구다. 유재건 장로는 1965년 첫 직장으로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이후 56년째 활동하고 있다. 유 장로는 “국적과 문화가 다른 청소년들의 교류를 늘리고, 경색된 남북교류의 물꼬를 더 순수 민간 차원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온누리교회가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실시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로 2주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물품을 모아 굿월스토어에 기증하는 운동이다.

온누리교회에 설치된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물품을 넣거나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기증 방법을 알려준다. 대형가구나 설치가 필요한 전자제품, 오래된 아동 전집, 큰 플라스틱 장난감, 사용한 침구 및 속옷 외에 모든 물건을 기증할 수 있다. 굿월스토어에서 방문수령을 하기도 한다(100L 이상).

문의: 굿월스토어(1670-9125)

온누리과 함께 ‘90일의 기적’ 종료

앞으로도 하루를 새벽기도로 시작합시다!

온누리과 함께 기적과 은혜 속에 이어진 ‘90일의 기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4월 3일(토) 대장정을 마쳤다.

김형숙 성도(이수공동체)는 “90일 동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면서 “

앞으로도 공동체 지체들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형준 다락방장(강촌공동체)은 “말씀에 젖어 살았던 90일이었”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보유량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헌혈운동인 생명나눔의 기적

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948명(4월 1일 기준)이 참가했다. 허경 집사(피택장로, 서초A공동체)는 헌혈증서 40장을 교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4면>.

90일의 기적은 막을 내렸지만 새벽기도의 은혜는 계속된다. 서빙고, 부천, 수원 오전 6시, 양재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남양주, 평택, 인천, 양지 오전 5시 20분, 대전 오전 5시 20분(세종교육관 오전 6시), 강동 오전 6시 20분에 새벽기도회가 진행된다. / 정현주 기자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90일의 기적, 90일의 은혜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 그리고 간증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통로였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대장정을 마쳤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한 성도들은 하나 같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루를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다. “답답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지만,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90일의 기적은 곧 90일의 은혜였다”는 눈물겨운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최영은 성가사(하모니공동체, 도곡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었다.

“저는 도곡 온누리교회와 CGNTV 세라핌 합창단(이하 세라핌 합창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숨 쉬는 게 당연하듯이 정말 소중하고 당연한 일과

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과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있던 최영은 성가사에게 90일의 기적이 넘쳐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

“여전히 도곡 온누리교회 예배가 중단되어 있고 세라핌 합창단 아이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그 위기를 거릿말처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진 기분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덕분입니다.”

90일의 기적,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최영은 성가사처럼 90일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들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토록 소원하던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성도, 크리스천의 소명을 발견하고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한 청년,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성경필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초신자까지 ‘90일의 기적’은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선물했다.

강민경 성도(서초D공동체)는 ‘90일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면서 난생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성경읽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정민욱 집사(송파A공동체)는 퇴근길 막히는 도로 위에서 듣는 90일의 기적 말씀이 생명수와 다름없었다. 암 투병 중인 이원희 권사(관악금천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극심한 통증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자 위로”라고 고백했다.

90일의 기적은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김의영 권사(서초A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그 재미나던 TV, 영화가 시시해졌다.

“성경일독을 하면서 TV와 영화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고, 그 대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소망이 생겨서 성경필사도 시작했구요.”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게 90일의 기적은 한 줄기 빛이었다. 이정림 집사(경기A공동체)와 딸 김보라 자매(예수사랑부, 온사랑합창단)는 함께 성경일독을 하면서 힘들고 무료한 일상을 극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부서 아이들이 누구보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무료한 시간을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봉옥 권사(중종로공동체)는 1급 장애인 아들과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온 가족이 새벽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은혜였고요. 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0일의 기적은 공동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동역의 기쁨도 만끽하게 했다. 한채린 자매(대전 온누리교회)는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참가한 덕분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혼자 성경일독을 했다면 흐지부지되었을 것 같은데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참가한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한금숙 성도(부천 한사랑공동체)는 탈북민들과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며 그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그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경험이었습니.”

허은진 순장(중종로공동체)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지체들을 위한 단체채팅방을 관리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90일의 기적 단체채팅방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 활동인 셈입니다. 그분들이 90일의 기적의 은혜를 토대로 공동체에 소속되어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공동체 성도들의 교제가 활성화되면서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90일의 기적 ‘한 줄 은혜’

·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90일의 기적’이었습니다.

/ 조승찬 집사(여의도공동체)

· 성경의 신비 속으로 초청해주시고, 비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기적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려 합니다.

/ 김홍수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상황 속에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은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으샤 으샤하면서 90일을 지나와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영적인 시간들을 기도로 준비해주신 교회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 한채린 자매(대전 온누리교회 빌리프대학부)

·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기를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를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성수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 천지창조(창세기)부터 주님 재림(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제 마음에 담는 90일이었습니다. 아멘!

/ 마선일 성도(강남E공동체)

· 혼자 하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 공동체가 함께 하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연초에 어려운 시대와 사회 현상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잡한 삶 가운데 단순화되고, 하루 시간들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유혜영 성도(대전 북누리공동체)

· 목사님이 매주일 온라인 강의로 “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매일 내 곁에 두는 것”이라고 독려해주셨는데, 그 말 의미대로 이미 제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정인애 성도(서초D공동체)

· 90일 동안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나마 잘 버티며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90일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 박용배 성도(양지 온누리교회)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였습니다. 매년 작심삼일로 끝나는 성경통독을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완주하고, 매일 한 줄 소감을 나눈 것 또한 큰 은혜였습니다.

/ 윤정규 성도(강남D공동체)

· 가난한 혼인잔치에서 물독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의 심정으로 90일간 소임을 다했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일상이 잔치의 귀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소망합니다. 매일 밤 함께 수고해준 아내와 많이 친밀해진 것도 90일의 기적 중 하나입니다(웃음).

/ 함우석 성도(일산공동체)

· 90일의 여정은 어두운 터널에서 빛 가운데로 향하는 기대와 행복이었다. 종착역에 다다를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 김정은 성도(브릿지33+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 나눔, 사랑 나눔

90일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 948명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헌혈증 기증 캠페인 시작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이 막을 내렸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이어졌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 948명(4월 1일 기준)이 참가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온누리교회 SNS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매일 업로드 됐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명 나눔, 사랑 나눔의 은혜가 기록됐다. 또 다른 생명 나눔의 기적도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헌혈증 기증 캠페인이다. 4월 30일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요즘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느 헌혈의 집에서 건네 온 인사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행이 소문이 난 모양이다.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헌혈의 집으로 향했던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만들어낸 열매다. 90일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헌혈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선행, 복음까지 함께 전했다.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쓰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귀한 간증들이 가득 쌓였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기 위해서 생애 첫 헌혈을 한 성도, 자녀와 함께 생명 나눔의 기쁨을 경험한 성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함께 참가하면서 두 배의 행복을 누린 공동체와 사역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헌혈을 다시 시작한 성도,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 보답헌혈을 한 성도, 헌혈을 100번 넘게 한 성도, 헌혈의 집을 찾아 먼 거리를 달려간 성도,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며 생명나눔의 기적에 두 번 이상 참가한 성도, 고령에도 헌혈에 앞장서며 신앙의 선배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준 성도까지 정말 아름다운 간증들이 차고 넘친다.

김정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생명나눔의 기적 덕분에 생애 첫 헌혈을 용기내서 할 수 있었다. 김정미 전도사는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헌혈을 주저했는데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미와 이웃사랑을 몸소 가르쳐 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쌍둥이 아들과 함께 헌혈의 집을 방문한 김지훈 순장(남양주 온누리교회)은 “헌혈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의미, 헌혈하는 이유 등을 알려줬다”면서 “아빠보다 더 많이 헌혈할거야”라고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함께 참가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헌혈을 다시 시작한 성



9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헌혈의 집으로 향했던 온누리교회 성도들.

도도 있다. 김태형 순장(부천 온누리교회)은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35년 동안 잊고 있던 헌혈에 대한 마음이 다시 떠올랐다”면서 “술선수범하는 교회 리더십들과 기쁨으로 참가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기쁨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성도도 있었다. 성하영 성도(송파A공동체)는 “2년 전 암투병 중이던 친구를 위해 공동체 성도님들이 헌혈해 주셨다”면서 “친구는 천국에 갔지만 그때 보여주신 마음과 사랑의 빛을 갚고 싶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김승욱 성도(평택 온누리교회)는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해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진 생명의 빛을 갚기 위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면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헌혈을 하면서 생명의 빛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헌혈의 집을 찾아 먼 거리를 달려간 성도들도 많다. 한정갑 성도(서산 온누리교회)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꼭 동참하고 싶어서 서산에서 천안까지 왕복 3시간을 아들과 함께 달려갔다”면서 “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계속 이어지는 생명나눔의 기적

큰딸의 생애 첫 헌혈을 함께했던 서광열 집사(경기A공동체)는 두 번째 헌혈도 함께했다. 서광열 집사는 “딸과 함께 헌혈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내의 걱정 어린 핏박(?)을 걱정했던 이윤철 성도(OEM공동체)는 아내와 함께 헌혈했다. 이윤철 성도는 “헌혈할 때마다 저의 건강을 염려하던 아내와 함께 헌혈했다”면서 “온 가족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교회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허경 피택장로(서초A공동체)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여섯 번이나 동참했다. 헌혈증 40장도 기증했다. 허경 피택장로는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 소식을 듣고 모아둔 헌혈증 40장을 기증했다”면서 “헌혈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고백했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에서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성도들의 헌혈증을 모아 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하는

캠페인이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4월 30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자 소감

“헌혈이 가능한 것, 순원들과 헌혈에 함께 동참한 것,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조진우 성도

“90일의 여정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헌혈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양승원 성도

“저는 초신자입니다. 이번 90일의 기적을 통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목표 중 하나였던 헌혈을 하게 되어 뿌듯합니다.^^”

/ 양영욱 성도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두란노서원에서 발간하는 잡지 <빛과 소금> 4월호에서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신앙고백을 다루었습니다. 그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 대부분이 매우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눈물이 잘 안 나와서 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침이 잘 나오지 않아서 밥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 물을 계속 마셔야 하는 ‘쇼그렌 증후군’이 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결국 실명하게 되는 ‘어셔 증후군’도 있습니다. 피부와 점막에 발진과 수포가 계속 생기고 피부가 벗겨져서 옷이나 이불만 덮어도 살점이 달라붙어 떨어지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입니다. 이 질병들은 바울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 질환을 앓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조현병”이라고 고백합니다. 조현병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날마다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꺾는 영적인 안전장치 같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의학 기준으로 볼 때 희소 질환을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경험했는지를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희소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육체의 가시’와 ‘악함’을 자랑하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7절).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와 더불어 지극히 아픈 가시를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알்க는 곳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곳이자 새 하늘과 새 땅의 일부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모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천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만으로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큰 영향력과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4년 동안 이 체험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체험을 말할 때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처럼 3인칭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계시와 더불어 아픈 가시를 받았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지극히 큰 계시만 있고, 지극히 아픈 가시가 없었다면 매우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픈 가시만 있고 지극히 큰 계시가 없었다면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계시와 지극히 아픈 가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극히 큰 계시의 체험은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지극히 아픈 가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큰 가시를 택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둘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지극히 아프게 한 가시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를 경험한 것을 말할 때 자신이 아닌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이나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게 교만이 솟아오르게 되고, 각색되고, 보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고, 본 것을 말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후반부에 이단으로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자신의 체험을 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체험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계시를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와 악함을 자랑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 악함 속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

겠습니다”(5절).

바울과 상관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12장에 걸쳐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을 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 유익해 보이지 않는 일을 왜 그가 해야만 했을까요? 대적하는 이들이 스스로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랑함으로 대적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은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인 양 포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바울에게는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며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행했던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자기 포장과 과대한 자기 자랑에 성도들이 쉽게 넘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기 자랑의 절정과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했는지, 자신이 실제 하늘을 경험했는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합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합함에 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연합하게 만들지만, 그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해박한 지식과 천국의 일부를 경험한 체험이 아니라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연합하게 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에서 인터뷰한 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일관된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경험하는 연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누구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필립 안시는 고통을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통은 꼭 희소 질환을 겪어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부도나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황당할 정도로 사소한 것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왜 고통스러운가’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입니다. 남편을 죽인 인디언들에게 다시 들어가 16년 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고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고통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느끼는 기준이나 강도가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 과연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악함을 경험하고, 그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야 주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이 없으면 주의 은혜가 족해야 하는데,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멀거리지’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모두 없앤다고 해 보라. 그런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일 것이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 성향을 바로 잡을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인간은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고통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아 줄 정도로 나빠질 것이다.”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사악한데, 만일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악해질까요?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는 그 악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악할 때가 곧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악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주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을 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악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악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9~10절).

만약 바울의 간구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면 더 큰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시고, 선물처럼 간직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받은 지극히 큰 계시를 왜곡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연합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14면에 계속)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북한 주민들의 영을 깨우고 복음 전하는 서점

탈북민 최영일 성도의 간절하고 소중한 기도제목

얼어붙은 고용시장,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코로나19까지...

이 시대 청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으면 주위 청년들이 하나같이 “요즘 사람 구실 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를 참 많이 한다. 크리스천들은 살기가 더욱 힘들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모범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삶과 신앙,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보석보다 귀하다.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만났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탈북민 최영일 성도(하나공동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북한에는 ‘3계층 51개부류’라는 비공식적인 신분제도가 있다. 이 신분제 중에서 최하위가 바로 기독교 가정이다. 기독교는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은 기독교 가정을 깨마고원, 탄광, 농촌 등지로 강제 이주 시키고 서로를 감시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철저하게 제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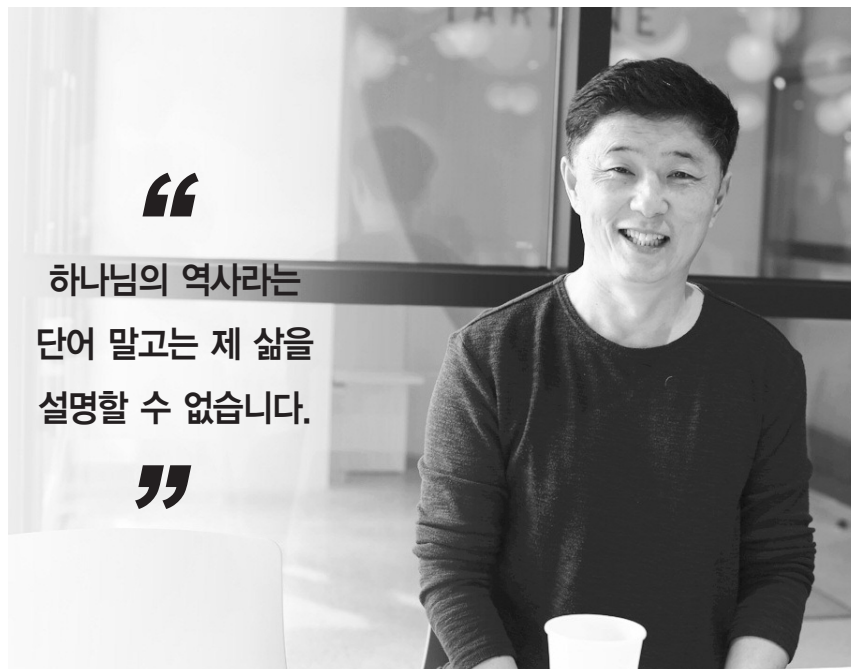
최영일 성도의 외가와 친가는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었다. 최영일 성도의 친가는 평양과 더불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안북도 선천에서, 외가는 중국 길림성 류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방 이후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북한 노동당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양가를 양강도 신파군(현 김정숙군)으로 강제 이주 시켰다. 그곳에서 최영일 성도의 부모님이 만나 가정을 꾸렸다. 최영일 성도 가정은 강제 이주를 거듭한 끝에 함경북도 온성군 탄광에 자리를 잡았다. 중국 땅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지만 세뇌교육과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탈북은 생각지도 못했다.

“저는 2남 1녀 중에서 장남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급에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대학시절을 보고 진학을 하려는데 아버님이 ‘너는 출신성분 때문에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고 만류하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니가 우리 가정은 기독교 때문에 고초를 겪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님을 따라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라디오로 처음 들은 ‘복음’

최영일 성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조부모나 부모에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 조부모까지는 신앙이 전수 되었는데 부모세대에 이르러서는 신앙이 단절됐기 때문이다.

“대대로 전수되던 신앙이 북한 노동당에 의해 뜯겨졌습니다. 성경도 없고, 기독교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는 자주 제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셨던 것 같



복음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최영일 성도(하나공동체).

“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 말고는 제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습니다.”

최영일 성도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한 방송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다.

“저희 철도부에 제가 좋아하던 고향 선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선배의 아내가 처가에 갔다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선배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한 방송에 완전히 중독돼서 밤마다 라디오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최영일 성도가 처음 들은 남한 라디오는 KBS 한민족교육방송과 극동방송이었다. 최영일 성도에게 남한 방송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라디오에서 남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배우기로는 남한은 미제 군화발에 밟히는 식민지였는데 라디오로 듣기로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고리타분한 소리를 믿는 바깥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웃음).”

탈북 그리고 9년 동안의 훈련

최영일 성도는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들으면서 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탈북했다.

“제가 중국에는 먹을 게 쌓여있다고 가족들에게 탈북을 제안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탈북했습니다. 떠돌고 떠돌다 한 신부님을 통해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 댁에서 몇 달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향한 저의 마음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신앙 서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었는데 성경에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년 쯤은 성경을 보며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님께 조금씩 물어보면서 천천히 복음에 젖어 들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십사일만 돈을 모아 북한에 남아 있는 최영일 성도의 가족 탈북을 도왔다. 이 일을 계기로 최영일 성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 말고는 제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흩어지고 저는 9년 동안 중국 지하교

회와 신학교를 돌면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 다.”

정말 고마운 하나님의 사람들

“영일 형제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한 성도가 여비를 후원하고, 중국 선교사들이 금식기도를 하면서 최영일 성도 가족의 한국행을 도왔다.

“정말 기적같이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오스에서 배낭여행객을 만나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마침 태국에서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안전하게 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태국 대사관과 연결된 교회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태국 대사님이 온누리교회 고 윤지준 장로님이셨습니다. 날마다 새벽기도를 나오셔서 탈북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해주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은 최영일 성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온누리교회다.

“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알맞은 교회가 어딜까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온라인으로 많은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자유롭고 격의 없는 온누리교회 예배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성도가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학교와 서점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배워야겠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공부하면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에도 양질의 서점을 만드는 꿈입니다. 매일 이 꿈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GNTV 개국 16주년

“CGNTV의 도전 그리고 변화”

미디어 선교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하여

CGNTV는 지난 16년 동안 끊임없는 혁신으로 기독교방송의 변화를 선도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TV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변화했다. 그 원동력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 해온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이다. 16년 동안 쉽 없이 이어온 CGNTV의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소개한다.

꼭 필요하지만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

‘선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해외 선교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선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북한 선교가 큰 과제다. 기독교 언론에서도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단발적인 캠페인이나 대담 수준에 그쳐 큰 담론만 다루고, 북한 선교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GNTV는 2011년 <반갑습네다>를 시작으로 <통일북소리>를 거쳐 2017년 종영된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북한과 탈북민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의제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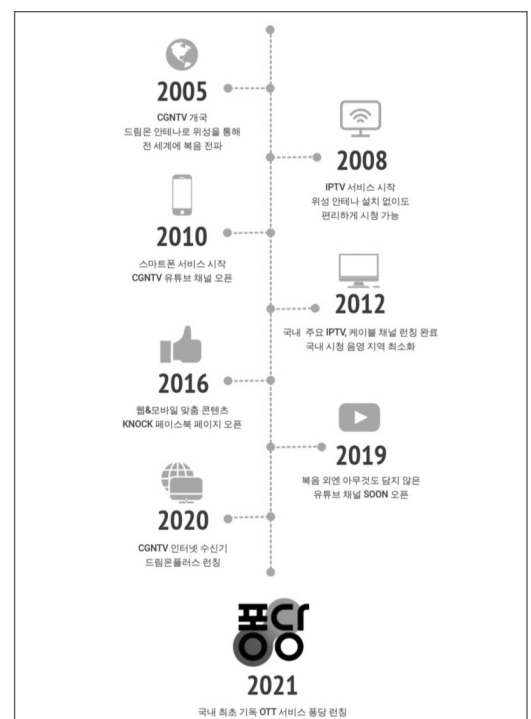
사회 선교에도 관심을 가졌다. 2016년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이들을 찾아간 <거룩한 바보들>, 한국 사회와 어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문화가정과 그들을 돕는 이들을 그린 <지구촌 반사회>가 대표적이다. 온라인에서는 <미니휴먼다큐>가 노숙자,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등 다양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다.

CGNTV는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 콘텐츠 역시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는 가정의 교화가 되는 일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가정예배가 교회의 성장과 예배의 진행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 교회 전반에 가정예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최근에는 <버미제니>, <갯툰> 등으로 새로운 형식의 다음세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쓰임 받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 등 해외 선교 콘텐츠 역시 충실하게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 선교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충성! 은혜로軍>, 지역사회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지방의 작은 교회 이야기를 전달하는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시리즈 등도 이어가고 있다.



CGNTV의 가장 큰 도전과 변화인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위),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아래), CGNTV 플랫폼 히스토리(오른쪽).



“CGNTV의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후원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이다.”

미디어 선교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두고 달려왔기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조차 기쁨과 감사로 걸을 수 있다.”

CGNTV 장르의 폭을 넓히다

장르의 폭을 넓히는 변화에도 CGNTV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기독교방송은 대부분 예배, 말씀 강해, 강의가 핵심 장르다. CGNTV는 이 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큐멘터리와 예능, 드라마, 영화, 웹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청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응했다.

CGNTV 다큐멘터리는 높은 완성도로 시청자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해왔다. 2012년 <스마일 라크로스>가 환태평양 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국내외 주요 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것이 그 증거다. 기독교 콘텐츠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편견에 도전해온 CGNTV의 헌신이 장르의 다양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다.

특히 2017년 개봉한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CGNTV의 대표적인 열매 중 하나다. 극장 개봉 당시 1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당시 기독교 역사상 흥행 2위 기록을 세웠다. 현재까지도 군 선교 등에서 이 영화를 유용한 선교 도구로 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다시 봄>, <고고송> 등의 프로그램이 드라마 제작의 밑거름이 되면서 장르

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CGNTV는 <스물여든>, <사문첩밥> 등의 단편 영화, 드라마 장르 콘텐츠로 방송 선교의 지경을 대폭 넓혀가고 있다.

CGNTV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콘텐츠 확산을 준비했다. KNOCK, SOON과 같은 모바일 특화 브랜드로 모바일 시청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미니휴먼다큐> 시리즈로 큰 사랑을 받은 KNOCK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도도구로 유용하게 쓰였다. KNOCK에서 출발한 <붓소렐>은 많은 사랑에 힘입어 독립 채널이 될 만큼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짧지만 강력하고, 인상 깊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순수 채널 SOON 역시 <3분 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시대 신앙 성장과 은혜 나눔의 도구로 충실히 사용되었다. 10만 구독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CGNTV의 도전과 변화의 정점에 ‘풍당’이 있다.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은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한데 모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리한 양육,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복음적인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를 원하

는 성도들의 요구와 맞닿아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CGNTV는 더 널리 복음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플랫폼의 변화에도 거침이 없었다. 안테나로 상징되는 위성을 시작으로 인터넷, 케이블TV, IPTV, 소셜 미디어, 드림온플러스, 풍당에 이르기까지 빠르게도 강력한 변화를 이어왔다. 모든 변화의 순간마다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만큼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CGNTV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닿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매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 CGNTV가 후원만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소유이거나 광고로 운영된다면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없다.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에 안주하기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CGNTV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디어 선교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두고 달려왔기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조차 기쁨과 감사로 걸을 수 있다. 지난 16년,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미디어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께 감사드린다. 이토록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CGNTV 커뮤니케이션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신법 VS 실정법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신법(divine law)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신화 속의 존재로 취급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은 진화론의 패러다임 위에 세워져 있어서 인간이 진화하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도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의 도덕률이 인간을 너무 억압하고 특히 성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률을 버려야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무신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세상에서 인간중심으로 시행되는 법체계를 실정법(positive law)이라고 한다. 이들은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에 법의 기반도, 구체적인 법률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제정의 궁극적 권위가 국가에 있다고 믿는다. 그 법을 규정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의 법체계, 특히 집권당이라는 이익집단 중심의 법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실정법 체계에서도 법전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진화

론과 혼합되면서 더 큰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법은 일반적 지침일 뿐 각 사건의 전후 맥락과 연관되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의 법률가이며 작가인 존 하이트헤드는 “법에 영속성이 없고 절대적 기준이 없는 경우 그 법은 판사나 행정관이 해석하고 집행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법에 영속성이 있다면 어떤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절대적 기반 위에 세워진 법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번덕과 이익에 의해 요동하지 않는 법체계를 제공한다. 그 법은 일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되며, 그런 까닭에 공정하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위에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실정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인간중심의 실정법 체계는 하나님이 법률 제정자임을 부인하고, 그분이 주신 신법을 무시하는 사회이다. 살인, 도둑질, 사기, 강도, 간음 등을 금하는 자연법을 부정하는 사회이다. 자연법적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20층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독단적 법률을 제정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에 공정성이 사라지고 편파적이 되면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도 사라진다. 법의 구속력이 감소되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세상이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게 변해가는 것을 한탄했던 도킨스가 간과했던 진리이다.

법의 최고 권위를 국가에 둔 실정법에서 특정 법률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할 경우 국가가 취할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국가가 만들어낸 실정법도 절대적이므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권위를 악용해서 독재하며 정권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들에게 인권은 국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자연법적 권리라기보다는 헌법적 권리이다. 국가가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법에 의해 유보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 무한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대해 국가가 급진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다가 국민과의 충돌에서 패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심할 경우 국가의 권위가 국민에 의해 휘둘리고 법체제와 사회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프랑스 혁명이나 1차 러시아 혁명에서 보듯 혁명주동자들이 반대자를 초법적으로 숙청하며 심각한 사회 혼란만 야기하다가 혁명의 에너지가 상실되면 혁명 이전의 구체제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

국민들이 국가의 법에 불복종할 가능성보다 큰 근본적인 실정법의 문제는 정부가 법과 인권의 근원으로써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칼 렌히는 “이 세상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은 절대적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만일 기준이 될 만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반을 부정하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정부, 스스로의 정당성,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비판을 거부하는 독단적인 정부의 탄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 실정법은 신의 권위를 가진 국가를 창조하고, 그 국가는 모든 권력을 휘두르며 각 개인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신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 신법에 복종한 인간과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이 보호되고 번성하였다. 반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인간과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체계가 파괴되고, 인권도 무시될 것이며, 그런 국가가 건강할 수 없다. 국가의 지배자들이 신법을 무시할 경우에는 악법, 악한 행정, 편파적인 판결, 부패, 공적자금의 낭비 등 다양한 형태의 악으로 나타난다.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정부의 형태, 재판 제도 등을 고안하지만 결국 신법에 순종하는 것 이외의 다른 개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정법을 통한 지배는 이해 당사자 간의 끝없는 충돌에 의한 혼란이나 권력자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성경의 메타네러티브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절대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과 그들이 세운 국가의 결국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묵상: 절대적 기준이 없는 실정법만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할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관계와 애착관계

“부부관계를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듭니다. 다시 용기 내서 손을 잡아달라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자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어릴 때는 어머니 아빠 즉,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애착을 형성하고자 한다. 어린 시절 주양육자가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주고, 아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주었다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 특히 상대의 거절과 불편한 반응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애착수준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매우 불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신, 관계에 대한 불안, 혹은 집착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애착, 신뢰감의 수준 정도는 매우 중요한 관계적 형태로 나타난다. 부부의 애착정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정서적 친밀감, 돌봄, 성적 친밀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적인 친밀감은 부부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과 낭만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owlby).

만약 부부의 성적관계에서 차가운 거절 혹은 누적된 거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애착정도가 안정적인 사람에게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 부부의 성관계에서 차가운 거절을 경험한다면 분노와 좌절, 절망, 관계 단절 등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남편(아내)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절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 그동안 쌓였던 거절의 기억이 부정적 감정으로 증폭되어 분노로 나타났다. 화가 나서 복수를 결심했고,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게

됐다. 만일 이 부부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고,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불안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의 성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내면의 갈등, 외도, 폭력,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녀의 출생에 따라 부부 성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한다. 자녀의 사춘기나 부부의 중년기 등 가족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도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변화의 시점에 부부는 더욱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시간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만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부 사이라도 원하지 않는 무리한 성관계는 부적절하다. 부부 사이라도 성관계에서 거

절을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진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게 좋다. “나도 당신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데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좋은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어때요?”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성관계의 거절이 배우자에 대한 거절이 아님을 알게 해줘야 한다. 배우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절은 잠시 멈춤일 뿐이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심리적 유연성 또한 필요하다.



황국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코로나19, '선교'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NGO 더멋진세상 단기선교사

봄이 왔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로 청년들은 아직도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26.8%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 20~30대 취업준비자가 76만 명이나 된다. 이 어려운 시기 취업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일이 있다며 새로운 도전을 한 청년들이 있다.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자 NGO 더멋진세상 단기선교사로 자원한 하나님의 청년들이다. 그 주인공은 임혜빈 자매(허브대학부)와 권소향 자매(허브대학부)다. 두 자매는 NGO 더멋진세상 소속 단기선교사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 교육과 지부운역을 돕는다.

임혜빈 자매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교육하는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센터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직 사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현지에서 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지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권소향 자매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선임선교사를 도와 지부회계와 교육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찾아 단기선교사로 자원한 권소향 자매(왼쪽), 임혜빈 자매(오른쪽).

나 단기선교사로 도전한 저의 1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선교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임혜빈 자매와 권소향 자매가 NGO 더멋진세상과 단기선교사에 도전한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이다. 임혜빈 자매는 NGO를 통해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싶은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NGO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단기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과 NGO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교회나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단기선교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난해 NGO 더멋진세상에서

해외사역자를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단기선교와 NGO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더라고요.”

권소향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 NGO 더멋진세상 단기선교사로 선발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가고 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의 소명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NGO 더멋진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1년이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청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와 르완다로 떠나는 두 자매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저희가 선교사라고 불려도 되는지, 선교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총체적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욕심과 의를 내려놓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다윗공동체 연탄 나눔 사역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다윗공동체(이하 다윗공동체)가 지난 2월 팔기원마을로 연탄 나눔 사역을 다녀왔다. 올해 다윗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사역이었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했던 사역이기에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항상 사역을 하기 전에 고민한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봉사와 교회의 사역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과 부담감에서 오는 고민이다. 팔기원마을 연탄 나눔 사역을 가기 전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꼭 남기고 오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다.

10년 넘게 연탄 나눔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 팔기원마을을 소개받았다. 팔기원마을은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인 규모가 작은 마을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겨울이면 연탄 나눔이 꼭 필요하다. “연탄을 땀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태”라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다.

공동체 지체들이 지계를 지고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다. 나는 연탄 하나가 3.8kg나 되는



다윗공동체 청년들이 팔기원마을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을 나르고 있다.

줄 몰랐다. 몇 개는 거뜬히 들겠지 생각했는데 보통 무게가 아니었다. 자매들은 연탄 3장 정도씩 지계에 지고 갔다. 어르신들의 집 앞으로 연탄을 지고 가면 집 안에서 연탄을 받아 나르고 쌓는 지체들이 따로 있었다. 연탄을 지고 나르고 쌓으며 공동체 지체들도 정을 쌓았다. 집집마다 연탄과 준비한 간식 꾸러미를 놓

아드렸다. 집에 어르신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기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집 안에 연탄을 놓아드리는데 인기척이 없는 집들이 많았다. 한 집에서 어르신이 나오셨다. 환하게 웃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다. 교회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아들도 교회에 다니는데 늘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

서 좋아하셨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과 아직 할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할머니가 교회에 마음을 여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다.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차분히 앉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작은 관심과 나눔이 주님에게서 끊어진 발걸음을 돌리는 방법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봉사단체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는 우리들의 사역 덕분에 누군가는 교회에 실망했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볼지도 모른다. 단 순히 이웃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사역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주님께게서 끊어진 발걸음이 다시 주님을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품어주겠다.

/ 김순옥 자매(다윗공동체)

끊어진 발걸음을 돌리는 방법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 나라 일상을 사는 영웅들!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영웅〉
팀 체스터 저 | IVP | 13,000원

나는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 제목과 저자를 보고 목차와 추천의 글과 서문을 본다. 그리고 책의 주제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인지 자신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은 성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은 세

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관심거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관한 책들은 이상할 만큼 인기가 없다. 세상의 성공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에 관한 깊은 묵상과 십자가 복음이 녹아있는 책을 만날 때면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 팀 체스터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영웅〉이라는 책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일상영웅〉이라는 책을 들고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의문이 생겼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웅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일상영웅’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책의 목차와 서문을 읽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아 이 책은 나에게 필요한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지 않고 책을 구입했다. 책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곳에 줄을 긋고 표시를 했다. 마치 내가 들어야 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만난 듯 기쁨으로 한 장 한 장 읽어 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과 질문을 만났다. 예를 들면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의 월요일 아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내 신앙을 비웃을 때 십자가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 변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고, 또 죄의 역사적 종말을 선고한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순간 한 개인의 삶은 죄로 점철된 과거 위에 끝없는 하나님 사랑과 대속의 은혜가 덮이게 된다. 십자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한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사람의 미래이자 현실이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것의 종말을 고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이미 세상 마지막 사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2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는 시대의 장엄한 서막인 것이다.

저자는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이고, 우리들의 일상은 종말론적 삶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활이 우리의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미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기이한 사건이며, 역사 속에 침투하고 있는 미래”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다. 부활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일상은 십자가 이전의 일상과 달라야 한다.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왜 반복해서 일상에 대해 도전하는가? 도대체 우리들의 결혼, 분쟁, 이데올로기, 공동체, 돈, 대립, 유혹, 철학, 고난, 자녀 양육 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저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 삶을 형성해 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반사작용, 습관, 본능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일상이 십자가와 부활로 빚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영웅이 될 것이다.



신원석 목사
(동대문중앙공동체)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띄어쓰기와 하나님의 사람들

존 로스, 호머 헐버트 선교사



한글과 한국을 사랑했던 존 로스(좌), 호머 헐버트(우) 선교사.

“아빠가방에 들어가셨다”는 문장을 띄어쓰기를 배울 무렵 한 번쯤 접해봤을 것이다. 띄어쓰기에 따라 “아빠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빠 가방에 들어가셨다” 등의

전혀 다른 뜻의 문장이 될 수 있다. 한글에서 띄어쓰기가 중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띄어쓰기가 탄생하는데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존 로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했고,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띄어쓰기 보급과 정착에 이바지했다.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는 1872년부터 중국 만주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 고려문 일대에서 장사꾼 이응찬을 만나 한글교재 〈조선어 첫걸음〉을 만든다. 조선어 첫걸음은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사용된 책이다. 이 책의 띄어쓰기는 영어의 띄어쓰기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 로스 선교사는 한글로 성경 8권을 번역하면서 성경과 한글 보급의 초석을 다졌다.

한글 띄어쓰기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896년 〈독립신문〉이 간행된 이후다. 독립신문 간행 전에도 띄어쓰기를

사용했지만, 글을 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글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했다. 체계적인 띄어쓰기를 도입한 독립신문이 ‘보기 쉽게, 자세히 알아보기 쉽게’라며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중화에 힘썼다. 미국인 호머 헐버트 선교사와 주시경 선생의 역할이 매우 컸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고종에게 건의해서 국문 연구소를 만들고, 한글 지리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논문도 발표했다. 문맹률이 높아 고심하던 중국에 한글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글에도 하나님과 크리스천들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김영선 기자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꽃나무’

꽃나무를 심어 놓고
고대하는 마음에
꽃망울이 싹다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비가 스치면 꽃이 핀다니
이 약속 붙들고 달려가리

빗발은 이미 지나갔는데
구름이 하늘을 덮쳐선가
단단한 눈까풀 터뜨려 줄
포근한 빛 소식은 아득하다
신호는 자주 보내오는데
어찌 개화는 이리 더딘가

꽃나무를 가꾸는 뜻은
먼 내일을 피우려서지
어떤 꽃을 피어 낼지
무엇 할 꽃이 피어날지
어디에 설 꽃이 될지
누가 기다리는 꽃일지



지난 4월 2일 열린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

전영한 회장, 홍정길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등 참석

인천 영종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진다. 지난 4월 2일(금)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를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9-3번지에서 드렸다.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는 정진호 장로 대표기도, 홍정길 목사(건축위원장) 말씀, 이재훈 담임목사 축도, 전영한 회장 축사, 경과보고, 건축진행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홍정길 목사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

람이자 구원의 능력”이라며 “이곳에 우뚝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전영한 회장(하남주식회사)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된 오늘이 내 생일보다 기쁘고 좋다”고 고백했다. 정운섭 장로(서초B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시공사 (주)우리종합건설 관계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다

”고 다짐했다.

영종도 온누리교회는 대지면적 2,020.80㎡(611평), 연면적 3,222.86㎡(975평)로 총 5층(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세워진다. 교회 카페, 소예배실, 다목적실, 대예배실, 사무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영종도 온누리교회는 지난 2019년 전영한 회장의 기부로 태동했다. 전 회장은 교회를 세워달라며 영종도 부지와 함께 총 100억 원을 교회에 기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라인 심방 시작한다!

4월 5일~11월까지 한 주에 한 순씩

온누리교회가 4월 5일(월)부터 11월 말까지 ‘온라인 심방’을 시작한다. 온라인 심방은 공동체별로 한 주에 한 순씩 온라인(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심방은 한 순을 집중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목양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성도 개인 및 가정의 영적 돌봄을 이어가려는 교회의 노력이다. 각 순의 개인 및

부부 단위로 담당 교역자와 온라인으로 만나서 삶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역자로부터 영적케어를 받게 된다.

온라인 심방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다락방, 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3215-3239

/ 정현주 기자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홈페이지, 예배예약시스템, 전화 예약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면 예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예배예약시스템 앱(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하면 된다.

예배본부에서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주시고, 토요일예배에 참석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온라인 예배 예약이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로도 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 예약은 등록교인만 가능하다.

문의: 서빙고 02-3215-3220, 3263, 3661
양재 02-570-7918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

백혈병소아암협회 헌혈증 기증 캠페인

4월 30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38개 교회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가한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가 또 하나의 캠페인을 실시한다.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기증하는 캠페인이다.

헌혈증 기증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4월 30일(금)까지 헌혈증을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더 많은 교회와 단체,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www.blooddonation.co.kr)도 개설했다. 4월 4일(주일)까지 헌혈이벤트를 실시한다.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헌혈 참가 인증을 하거나 소감을 남기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 홍하영 기자

두란노문고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두란노문고 서빙고점에서 4월 3일과 4일 ‘90일의 기적’ 완주를 축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도서, 음반, 문구 등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해 주는 행사다(일부 품목 제외). 제품을 구매한 모든 성도들에게 두란노서원에서 만든 성경 읽기표도 증정한다.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on.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헬로맘 수강생 모집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이하 헬로맘)’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헬로맘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성, 부부 연합의 비밀, 아이 양육 방법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2716-2736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만들어진다

무공동체 성도 대상, 4월 10일부터 홈페이지 신청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온라인커뮤니티는 공동체 소속이 되지 않은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신앙공동체이다. 공동체 활동은 하고 싶는데 개인적인 사정(육아, 직장, 임원, 이사 등)으로 소속되기 어려운 성도, 중보기도와 장례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소속 공동체가 없는 20세 이상 성도가 대상이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신청은 4월 10일부터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는 5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화상)모임과 소그룹 나눔을 시작한다. 여성민목사와 이준인 목사가 담당한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두란노바이블칼리지 4월 온라인 세미나

기독교 영성 고전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주요 주제와 분문을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친절하게 해설하고 깊이 있게 강독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 온라인 세미나가 4월 9일과 16일 열린다. 어거스틴의 생애개관, 주제해설, 핵심 본문 강독 등을 주제로 이종태 교수(장로회신학대학원)가

강의한다. 회비는 4만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의미와 방법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위한 특강 ‘위대한 상담자 예수’ 온라인 세미나가 4월 8일 열린다.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5만원.

문의: 02-2078-3456

이혼자행복학교(DRS) 참가자 모집

이혼자행복학교(DRS)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강의한다. 이혼자행복학교는 이혼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의 위로를 경험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수강신청은 5월 1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원. 문의: 010-2539-5665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4월 24~25일 NGO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을 한다. 4월 24일(토)과 25일(주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betterworld.or.kr)에서 동참할 수 있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코로나19로 지구촌 이웃들이 더 많이 어려워졌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에 적극 후원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은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고 건강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

들도록 돕는 과정이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는 누구인가?’, ‘감정 알기 및 표현하기’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2647-5435

세례 간증



/ 오승환 성도(가정사역공동체)

결혼 6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가 찾아왔다. 주님이 주신 아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주아’라고 지었다. 아내는 임신 4주차에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복용한 약의 부작용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6주차에는 온몸이 부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위해 약을 쓰지 않고 견디다가 기도가 부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임신 20주차에는 아기의 뇌실이 크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 소아중환자실 자리를 준비해두고 출산했는데 다행히 주아는 우리 부부의 품에 건강하게 안겼다. 외래 진료 중에 뇌의 문제로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다. 100일이 갓 넘은 주아가 목을 가누지 못해서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내내 힘들어서 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럼에도 주아는 경련을 했고, 절망하던 중에 주님께서 선악과를 떠오르게 하셨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을 두고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귀한 생명의 신비는 보지 못하고, 주아가 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목을 가

눌 수 없을 것 같다”, “꼭바로 설 수 없다”, “근육에 점점 힘이 빠져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아는 힘껏 목을 들어 웃어주고, 끔끔거리며 앉았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와 다르게 주님께서 치료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주아의 건강이 되어주셨다. 1년이 넘도록 주5일 재활치료와 외래 진료, 독한 항경련제를 감당하며 20개월이 된 주아는 지금 매일이를 하면서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신나게 돌아다닌다. 작지만 큰 주아는 밝게 웃으며 선물 같은 하루를 보여주고 있다. 주님의 아이, 주아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한 생명이 태어나 소리 내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는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주님의 증거이다. 주님이 주아를 소중하고 아껴보게 보고 기실 줄 믿는다.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주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인사한다.

“교관님, 오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주아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고, 선물 같은 하루를 누리게 하는 교관님이다.

온라인 ‘와이 무슬림(Why Muslim?)’ 수료 간증



/ 서광열 집사(경기A공동체)

늘 무슬림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주변에서 ‘와이 무슬림(Why Muslim?)’을 수강해보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지만 마땅한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와이 무슬림 과정이 열렸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시아파와 아랍의 전통을 이어가는 수니파가 널리 알려진 이슬람 종파다. 양 종파의 전쟁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민족 이슬람, 신비주의적 이슬람 등 정말 많은 이슬람들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살폭탄테러 대부분이 무슬림들의 소행이다. ‘인살라’(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외치며 산화하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들의 사상을 누가 심어주었던 말인가? 이슬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전쟁에서 죽으면 순교자가 되어서 즉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다. 종교, 정치, 문화가 하나라고 하는데 경제까지도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 중동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무슬림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전력 신우회는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자”는 구호 아래 아부다비 원자력발전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사막지대에서 베포사를 지었다. 사막에서 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두산중공업도 중동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동에서는 복음을 듣는 무슬림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와 난민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내 무슬림 사역도 활발하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무슬림들을 위해 서빙고, 안산, 화성에서 아랍어, 이란어, 우즈베크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은 무슬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교사로 귀하게 사역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섬겨야 한다.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무슬림들도 증가 추세다.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우리의 몫이다.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역의 길에도 무슬림들의 영향이 크다. 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하트스쿨 수료 간증



/ 박하미 성도(부산 수영로교회)

한마음으로 비상하는 독수리 가족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트스쿨을 만난 것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서였다. 하트스쿨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를 먼저 체험한 언니가 지방에 사는 내게 하트스쿨 수강을 권유했다.

하트스쿨의 첫 강의 주제는 ‘감정, 그 은혜의 선물’이었다. 나는 감정이 풍부한 편이지만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했다. 그런 내가 감정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해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감정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 와 닿았다. 이를 위해서는 내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다.

회복의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회복의 과정에서는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로님께서 팀원들이 모두 가족으로 함께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해졌다. 하트스쿨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씩 생겼다. 인상 깊었던 강의는 미술치료였다. 평소 쓰지 않던 왼손으로 나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기도 하고, 남편과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통해 가족이 연합하는 경험을 했다. 가족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남편을 힘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호랑이로 그렸는데, 남편은 자신을 머리에 잔뜩 짐을 진 채 끄덕대는 개미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가족인데도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도화지에 소망을 담아 그려본 우리 가족은 한마음으로 비상하는 독수리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림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부어지고, 치유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하트스쿨은 나에게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갈망하게 하는 통로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하트스쿨 스태프들과 강사님들께 감사하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묵상 시



/ 권용성 장로(경기A공동체)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말없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며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손을 잡고
유월절 예루살렘 오던 길에
억지로 끌려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길을 갔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아들 루포는
훗날 로마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을 아들같이
사랑하고 섬긴 존경받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 라틴어로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뜻한다.

선교 목상

밀알과 온누리교회



박보혈 선교사
(남아시아국)

1931년 3월 목포 성결교회에 부임한 유명 부흥사 이성봉 목사는 문준경 전도사의 멘토와 지도목사로서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 그녀가 섬에 들어가 전도를 하고 기도처와 교회를 개척하면 이 목사가 교회 행사와 세례식을 집례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준경 전도사는 신안군 일대 6개 섬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성경이야기를 해주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1년에 신발 9켤레가 닳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증도, 임자, 임태, 하의, 장산, 임태도의 6개 섬에서 교회와 기도처를 세웠다. 신안군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를 만들었다. 현재 신안군 전체의 복음화율은 35%가 넘고, 증도의 복음화율은 90%가 넘는다. 증도에는 교회가 11개 있다.

1943년에는 개척한 교회들이 일제에 의해 모두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다. 해방 후에는 교회들을 차지한 친일 조직 방공단과의 투쟁을 전개하며 소송까지 치러야 했다. 1950년 6.25 전쟁을 치르며 신안군 일대에는 주둔한 인민군들 외에 토착 좌익분자들이 내무서원이 되어 부자와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다. 목포에 거주하던 그녀는 임자도 집에 있던 남편 정근택과 둘째 부인이 공산당원들에 의해 창고에 구금된 채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자도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공산당 간부들에게 토착 내무서원들이 그녀를 악질 예수쟁이 전도부인으로 고발해 붙잡혔다. 목포 정치 보위부로 압송되던 도중 국군이 목포에 상륙함으로써 호송하던 공산당원들이 도망가 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으면 증도

에 있는 교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남편의 목포집에 들러 장녀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한 다음 만류하는 이성봉 목사의 손을 뿌리치고 증도로 돌아갔다.

1950년 10월 5일 그녀는 증도의 시숙집에 들러 사정을 듣고 그들의 만류에도 내무서를 찾아가 다시 체포됐다. 새벽까지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오전 2시경 그녀는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와 주민들과 함께 증도리교회 근처 바닷가로 끌려나갔다. 그녀는 내무서원과 인민군들에 의해 “새끼를 많이 낳 씨암탉”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문준경은 내무서원들에게 백정희 전도사와 다른 주민들을 살려달라며 애걸한 다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총탄에 맞아 순교했다. 수양딸 백정희는 살아남아 문준경 전도사 순교의 증인이 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요 12:24)는 말씀이 그녀의 삶을 통해 그대로 실현됐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 친척 조카들인 김준곤(CCC), 정태기(치유상담연구원), 증동리교회 출신 이만신 목사(서울중앙성결교회) 등 100명의 목회자와 40명의 사모들이 배출됐다. 그중에서 김준곤 목사는 한국대학생 선교회(CCC)를 설립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제자들로 키워냈다. 그들 중 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와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가 있다. 하나님은 문준경 전도사를 씨앗으로 땅에 뿌리셔서 묘목들을 키우셨다. 그 묘목 중에서 김준곤 목사가 큰 나무로 키워졌다. 그 줄기에서 자란 하용조 목사를 통해 온누리교회를 성장시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선교를 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큰 나무로 키우게 하신다. 온누리교회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의 피 위에서 태어나 자랐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됐다.

권사칼럼

말씀이 이뤄질 줄 믿은 여자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나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 고생이 많았다. 남편은 중고등학교 시절 여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한 번은 갔을 법한데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남편의 과묵하고 무뚝뚝한 모습이 멋있고 믿음직스러워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무정하고 무심했다.

남편은 아이들과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자신에게는 강요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다. 나는 남편과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남편을 위한 기도제목이 첫 번째여서 새벽기도회, 금요철야기도회, 산기도 등 기도의 자리에 빠진 적이 없었다. 함께 기도했던 집사님들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들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남편은 자상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관대했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내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지?’ 라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생떼를 부렸다. 그때마다 내가 기도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자책을 많이 했다. 뻔처럼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 뚝에는 남편을 정성껏 섬겼다. 그런데 남편의 변화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슬금슬금 좌절이 왔다.

나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자신 있게 부르지 못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형편없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유명한 스티들의 간증을 많이 접하곤 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 변화와 간증

거리가 있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 했는데 스토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절망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엎드렸다. 그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라는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문안 온 마리아를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눅 1:45)고 했던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다가왔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 ‘아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게 되었다.

처녀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를 덮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전보다 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될 뿐이다. 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정말 복있는 여자다.

신앙에세이



배행삼 목사
(하늘대학부)

얼마 전 이사를 했다. 짐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사진첩을 보게 되었다.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성도님들이 선물로 준 사진첩이었다. 오랜만에 추억이 깃든 사진들을 바라보며 신기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진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에는 ‘마스크’가 없었다.

마스크가 내 삶에 온전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던 사람

이다. 그런 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너무 불편했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어느덧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한 삶이 되어버렸다.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의 아픈 빈도가 급격하게 적어졌다. 매일 코감기와 목감기를 달고 살아서 수시로 병원을 가야 했던 아이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호흡기가 약해서 자주 힘들어했는데, 마스크를 쓰게 된 이후부터는 호흡기 질환으로 더이상 병원을 찾지 않게 되었다. 마스크의 능력이자 축복(?)을 몸소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은 아이들부터 마스크를 알아서 챙기는 가족이 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한결같으면 참 좋겠지만

영혼의 마스크도 쓰자!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이 많다. 신앙의 기복이 생기고, 저점(邸店)을 찍을 때마다 우리는 많은 방황과 갈등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매일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다. 신앙의 기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영혼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아프지 않게 된 우리 가족처럼,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영의 아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써야 할 영혼의 마스크는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마스크가 질병에서 우리를 보

호해주는 것을 경험했듯이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의 건강을 되찾는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난 1월부터 시작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주에 끝났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대학부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매번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성경을 읽는 시간처럼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다고 고백하는 청년, 매번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 등이 그것이다.

90일의 기적은 끝났지만 새벽기도회는 변함없이 지속된다. 말씀과 기도라는 영혼의 마스크를 쓰자.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하신 말씀 그대로,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극히 큰 계시의 체험이 아니라 지극히 아픈 체험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을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 기적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것은 기근이요, 광야요,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강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함이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약함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40년 교육의 결과물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살인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는 지극히 연약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양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실어증에 가까운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이 만들어 낸 교만이 광야에서 씻겨 내려가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인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조상이 되려면 일단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데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후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나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꼽으려면 욥입니다. 욥은 창세기 시대의 인물입니다. 욥처럼 의롭고 성실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정은 믿음의 조상에 딱 맞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연약함, 약점,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약점과 단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최저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역사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은 셋째 하늘을 체험한 계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늘 아픔을 주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머문다고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육체의 가시가 떨어져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그 가시를 두실까요? 능력이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약함을 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능력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대속제물로 내려놓으신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숭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시 체험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의 능력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주의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와 함께여도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은혜를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통 속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혜가 족하지 않으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를 압도해 버릴 것입니다.

고통은 결코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통보다 무겁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충분합니다. 바울처럼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꼭 읽어야 할 책

순교자 아버지와 테너 아들 그리고 후손들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

Onuwo One Light Network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
원우현 저 | 도훈 | 11,500원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는 한국 성악계 최고의 테너로 손꼽히는 이인범과 그의 아버지 이학봉 목사의 삶과 신앙을 일가친척 지인들의 이야기로 재조명하는 책이다. 이학봉 목사의 순교신앙이 자녀들과 일가친척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어떤 열매 맺었는지를 살펴보는 신앙의 발자취이기도 하다.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소설 〈순교자〉는 평양에서 목회했던 이학봉 목사의 삶과 신앙을 담고 있다. 탁월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이학봉 목사는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 예배를 기점으로 북한 공산당의 눈에 띄게 된다. 수년 동안 공산당의 감시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는데 6.25 전쟁을 앞둔 1950년 6월 18일 평양의 목회자 14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그리고 소식이 끊겼다. 1980년 첼로 연주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친척 이방은이 이학봉 목사가 1950년 10월 18일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음을 확인했다.

소설 〈순교자〉는 경찰 연행 이후 홀로 돌아온 신 목사(이학봉 목사)의 삶과 신앙을 다루고 있다. 목숨을 아낀 배신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동시에 살았던 그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4년 출판된 소설 〈순교자〉는 2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이학봉 목사의 장남 테너 이인범은 아버지의 목청을 물려받았다. 테너 이인범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세계 3대 테너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얼굴, 목, 어깨에 심한 화상을 입고 3년 만에 재기한 이인범의 재기 독창회는 한국 공연 사상 최초로 매진을 기록했다. 테너 이인범은 한국 가곡의 선구자, 한국 오페라의 개척자 등으로 불리며 한국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다. 여기까지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순교자 이학봉 목사와 테너 이인범의 삶이다.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에서는 두 부자의 삶을 넘어 한 가문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이학봉 목사의 아내 이정자 여사(피아니스트), 손녀 이방숙 권사(피아니스트), 손녀사위 원우현 장로(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사위 김찬도(독립운동가) 등 이학봉 목사의 가문에 흘러내려온 은혜의 강물이 깊고도 넓다. 한국사 곳곳에 발자국을 남긴 이학봉 목사와 테너 이인범, 그리고 후손들의 삶이 소소한 은혜와 감동을 준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눅 6:43).

〈테너 이인범과 순교자〉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하는 책이다.

/ 김영선 기자

*테너 이인범 가곡 듣기 QR코드



CGNTV 개국 16주년 미디어 선교에 동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선교사를 위한 위성방송에서 시작하여
2008년 IPTV 채널 런칭,
2010년 스마트폰 서비스 시작,
2021년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이 시작되기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디어 선교의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thank you



개국특집다큐

컴백, 홈

은퇴 선교사 3인방의 함께 살아가기 프로젝트

방송일시 [본방송] 4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4월 6일(화) 오후 3시 30분

내레이션 배우 신세경

